“불교 가르침, 편견과 권위 낮추는 데 일조”

심리학자 크로버트, 연구조사서 발표


다른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개개인의 삶 속에 편견을 없애고 관용의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종교적 신념이 개인의 삶을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Pacific Standard〉지는 2월 19일 심리학자 메갈리 크로버트(Magali Clobert · 스탠포드대) 박사의 연구 결과에 주목, “특정 종교가 한 사회를 통째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다른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개개인의 삶 속에 편견을 없애고 관용의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크로버트 박사의 연구는 ‘종교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나쁜 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 라는 다소 엉뚱한 질문을 계기로 설계됐다. 이는 기존의 종교 관련 연구 대부분 ‘종교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라는 긍정적인 결과만을 내놓고 있지만, 그와는 달리 사회 곳곳에서 종교적 편견으로 인한 사건 ·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데 주목한 까닭이다.

〈Pacific Standard〉지에 따르면, 크로버트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에 게재하고, “불교적 가르침이 개인의 판단 기준에 투영될 때,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편견을 낮추고, 마음을 여는 관용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우선 인종과 국적을 떠나 238명의 참여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 이들에게 ‘불법’ ‘경전’ ‘사랑’ ‘성경’ 등과 같은 종교 용어를 10개, ‘자유’ ‘꽃’ 등 종교와 관련 없는 용어 10개 등 20개의 용어를 주고, 편견과 권위의 뜻을 함유하고 있는 단어의 풀이와 해법을 서술하도록 진행했다.

인종 · 국적 떠나 238명 대상 실시
종교 관련 · 비관련 용어 해석 실험
불교적 관점서 풀이한 참여자 52%
“불교는 종교성 떠나 관용 심어줘”

“이번 연구의 참여자 중 불교도는 8.5%, 기독교도는 22%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회교도, 민속신앙인, 무신론자 등이었다”는 크로버트 박사는 “대부분 자신에게 친숙한 종교 용어을 사용해 풀이와 해법에 응답했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풀이와 해법을 제시한 실험 참여자는 52%를 웃돌고 있다”며 “이는 불교적 사유가 편견과 권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험에 앞서 참여 대상자 238명에 대한 개개인의 편견과 권위에 대한 계량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크로버트 박사는 “이 결과 8.5%에 달하는 불교도 참여 대상자들이 다른 참여 대상자와 비교해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이번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불교적 가르침이 일반인 보다는 권위주의적이고 편견에 치우친 실험 대상자들에게 두드러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Pacific Standard〉 지는 “크로버트 박사의 연구 결과, 불교는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서로의 모순된 감정을 이완시키고 감정이나 사상의 벽을 낮추는 한편 서로의 소통을 유도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불교적 가르침은 종교성을 떠나 개개인에게 ‘관용’과 ‘사심 없는 행동’이라는 덕목을 심어줄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英 빌 법사, 6개월간 日 시쿠코 섬 순례

“1300㎞길 걸으며 88개 사찰 답사… 신심 다질 것”


빌 라이트(Bill Wright) 법사가 삶의 가치관이 된 일본불교의 정수를 되돌아보고자 6개월간의 성지순례를 떠난다.

17년 전 수계를 받은 후 영국 글로스터셔카운티(Gloucestershire county)의 글로스터(Gloucester)에서 의사이자 법사로서 포교에 전념하던 한 영국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본으로 떠난다.

〈Citizen〉지는 2월 22일 “빌 라이트(Bill Wright) 법사가 삶의 가치관이 된 일본불교의 정수를 되돌아보고자 6개월간의 성지순례를 떠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빌 법사는 3월 30일 일본 시코쿠 섬으로 떠나, 그곳에서 6개월간의 도보 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한 일본인 지인의 소개로 진언종에 입문에 공부한 후 17년 전 수계를 받았다”는 빌 법사는 “의사이자 법사로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스스로 신심을 더욱 다져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순례를 계획하게 됐다”며 “이번 순례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 있다면 시코쿠 섬의 88개 사찰과 내게 불법을 알려준 일본인 지인”이라고 말했다.

1400㎞에 달하는 시쿠코 섬 순례길은 ‘오헨로(お遍路) 순례길’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1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 성지 순례길이다. 여기에는 총 88개 사찰과 20개의 벳카쿠(別格 · 번외사찰) 등이 있다.

“오헨로 순례길은 보통 4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저는 ‘보다 천천히, 보다 세밀히’를 모토로 6개월간의 여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빌 법사는 “6개월간 내 신심을 다지는 것은 물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져볼 요량”이라며 “순례를 마치면 법사로서도 의사로서도 더욱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을 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Citizen〉 지에 따르면, 빌 법사는 이번 6개월간의 시코쿠 섬 순례를 위해 우턴 론 병원(Wotton Lawn Hospital)의 ‘정신상담의’라는 직업도 그만뒀고, 병원의 지인들은 그에게 일본 순례길에 사용되는 ‘스게가사’라 불리는 ‘삿갓’과 ‘지레이’라 불리는 종을 선물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천년 중국 불상에서 스님 미라 발견

앉아 있는 상태 그대로 보존…11~12세기 승려로 추정


내부에서 미라가 발견된 불상의 겉모습(왼쪽)과 내부를 CT촬영한 모습

천 년가량 된 중국 불상 속에서 승려의 미라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2월 24일 “네덜란드 드렌츠박물관이 중국 불상에 대한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던 중 앉아 있는 상태로 골격 구조가 그대로인 승려의 미라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불상 안 미라의 존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NL뉴스의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이 불상은 지난해 중국을 처음으로 나와 네덜란드 드렌츠박물관에 전시됐다.

당시 네덜란드 메안더의료센터는 불상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CT촬영으로 살펴보는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그 결과 11~12세기 원나라 고승의 모습을 본 딴 불상의 내부에서 사람의 뼈대가 확인됐다. 불상의 내부에 사람의 육신이 미라 형태로 들어있던 것이다. 미라의 내장은 들어낸 상태였고 내부에서 한자가 쓰인 종이도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이 불상이 11~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승려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표본을 채취해 DNA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미라가 거란족이자 서요(西遼)의 초대 황제인 야율대석(耶律大石 · 1087~1143 또는 1094~1143)의 스승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야율대석은 요나라 태조(太祖)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의 8대손으로 묘호는 덕종(德宗)이다. 이 불상은 헝가리 자연사박물관으로 옮겨져 오는 5월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사찰서 가장 먼저 향 피울 권리 팝니다”

중국, 설 앞두고 ‘분향’ ‘타종’ 권리 경매사이트서 거래


중국 전역에 있는 불교사찰들은 매년 춘제 기간이 되면 분향식과 타종식 행사를 여는 전통이 있다. 이 행사에는 많은 불교 신자들이 참석한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 · 중국의 설)를 앞두고 ‘분향 권리’ ‘타종 권리’ 등 춘제 종교행사와 관련된 각종 특권이 중국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거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2월 17일 “최근 들어 중국 최대의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淘寶) 경매사이트에는 일부 사찰에서 진행되는 타종식과 분향식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매매 가능한 ‘상품’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전역에 있는 불교사찰들은 매년 춘제 기간이 되면 분향식과 타종식 행사를 여는 전통이 있다. 이 행사에는 많은 불교 신자들이 참여한다. 보도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산시(陝西)성에 산재한 유명 사찰들과 관련한 ‘상품’이 많았다.

특히 저장성 진화(金華)시에 있는 한 고대사찰의 경우 춘제 당일인 19일 가장 먼저 분향할 수 있는 ‘초대장’이 2만1천501위안(약 377만8천155원)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돌아갔다.

역시 저장성 닝보(寧波)에 있는 한 유명 사찰에서 춘제 당일 가장 먼저 타종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의뢰인은 1만 위안(약 175만7천200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중국불교협회는 성명을 내고 “종교의식을 돈으로 거래하는 이런 현상은 불교의 명예를 떨어트리고 대중을 오도할 수 있다”며 “경매 등을 통한 자선행사에는 찬성하지만, 돈으로 (종교행사) 특권을 사는 행위는 고요하고 근엄한 불교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나은 기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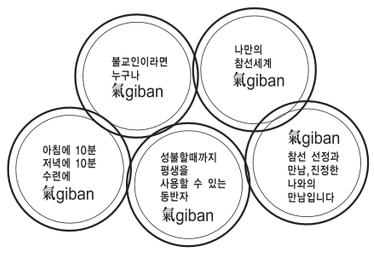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